

추석 가정 예배

인도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목 상 기 도 다 같 이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오늘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다 같 이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기 도 가 족 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오늘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 간에 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족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인하여 기뻐하며, 서로 용서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 씬 봉 독 골로새서 3장 16~17절 인 도 자

-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통한 기쁨과 감사 속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의 고유 명절입니다. 비단 이 명절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절기에도 있었습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기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소출을 드리며,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로 보건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감사’는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추석명절을 맞으면서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며 무엇으로 드러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마음을 다해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온전한 감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무엇 때문’에의 감사가 아니라, 욥과 다니엘 그리고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의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뜻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삶의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시간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를 위해서라면 어느 때라도 시간을 내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별된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시간, 즉 예배, 기도, 찬송, 묵상 이외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우리의 모든 삶으로 감사를 실천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야 말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에 보답하는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명절에 우리의 전인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뿐만 아니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를 향해 감사를 표현하는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1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 2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 3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 4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 후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취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 도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인도자의 기도로 마무리

주 기 도 문 다 같 이

교 제 추석 활동 다 같 이

활동 1

활동 이름 : 추석 빙고 놀이

준비물 : 빙고 판, 필기도구

활동 방법 :

- 1 가로 5칸 세로 5칸의 빙고 칸을 만듭니다.
- 2 빈칸에 추석과 관련된 단어를 적습니다. 이때, '감사'라는 단어를 곳곳에 세 번 적도록 합니다.
- 3 가족 구성원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신이 쓴 단어를 말합니다.
- 4 자신의 빙고판에 다른 사람이 말한 단어가 있으면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 5 표시된 단어가 가로, 세로 혹은 대각선으로 다섯 칸이 이어지면 하나의 빙고가 완성됩니다.
- 6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빙고 세 개를 완성하면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외칩니다.
- 7 "감사합니다!"를 가장 먼저 외친 사람이 승리하는 활동입니다.

Tip : 승리를 위해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적힌 빙고를 세 개 먼저 완성해야 합니다.

활동 2

활동 이름 : 추석 감사 카드 만들기

준비물 : 감사 카드, 펜 또는 사인펜

활동 방법 :

- 1 꿈미 설 활동자료로 제공된 '감사 카드'를 출력합니다.
- 2 출력한 감사 카드를 자른 후 한 사람당 2장씩 나눠 갖습니다.
- 3 올해 하나님과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각각의 카드에 편지를 적습니다.
- 4 가족들과 함께 편지 내용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합니다.

Tip : 카드를 섞어 무작위로 읽고, 누가 쓴 편지인지 맞춰 봅니다.